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권 2호(2013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3세부터 7세 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김수정 • 곽금주
진술조사 맥락에서 아동기억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이승진
아동의 혼합정서 이해에 대한 정서 이야기 개입 효과	정윤경 • 송현미
후기 아동기의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연구	박지은 • 설경옥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 -	조영일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종훈 • 성지현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를 대상으로 -	방은정 • 성지현
성숙한 노화 태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 - 성숙한 노화개념의 탐색 -	안정신 • 정영숙 • 서수균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자기 조절 능력이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하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3년 6월 15일  
2013년 6월 15일

편집위원장: 정윤경(가톨릭대학교)  
편집위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김혜온(목포대학교)  
정영숙(부산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조영희(California State)  
송하나(성균관대학교)

발행처: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성은현(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78  
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내)  
전화: 041-560-8132

심사위원(가나다순):	곽금주 (서울대학교)	곽윤정 (세종사이버대학교)	김근영 (서강대학교)
김명식 (전주대학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수정 (서울대학교)	김연수 (서울대학교)
김현수 (한양대학교)	김희화 (부산대학교)	남은영 (서울여자대학교)	박영신 (경북대학교)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성은현 (호서대학교)	성현란 (대구가톨릭대학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희옥 (군산대학교)	안신호 (부산대학교)
오영희 (덕성여자대학교)	유경 (한림대학교)	유연옥 (계명대학교)	이승복 (충북대학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이옥경 (성신여자대학교)	이종숙 (덕성여자대학교)	이현진 (영남대학교)
장문선 (경북대학교)	정명숙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정영숙 (부산대학교)	조아미 (명지대학교)
조영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최영은 (중앙대학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학회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부하며, 비회원에게는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한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학회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26, No. 2.

2013. 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Cheon An, Korea.

Editor: Yoon-Kyoung Jeo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Editor:

Hye-On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a Song (Sungkyunkwan University)

Hyeon-Ju Song(Yonsei University)

Young-Hee Cho(California State University)

Young-Sook Jeong(Busan National University)

\* 이 학술지는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성숙한 노화 태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 :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안 정 신

정 영 숙<sup>1)</sup> 서 수 균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숙한 노화태도를 잘 늙는 것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로 정의하고 기존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들과 심리사회적 성숙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숙한 노화태도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와 심리사회적 성숙의 차이를 확인하고 성숙한 노화와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개의 연구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하여 60세 이상의 노인 719명과 3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성숙한 노화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더 잘하고 인지기능이 높고 질환수도 적으며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적 일상생활의 동작수행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숙한 노화태도 점수가 높은 노인들은 낮은 노인들보다 일상생활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문제가 적고 질환수도 적으며,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 초월, 지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한 노화태도 점수가 높은 노인들이 낮은 노인들보다 심리사회적 성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통합감과 초월이 성숙한 노화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노인의 잘 나이들기에 대한 구성개념으로 성숙한 노화태도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숙한 노화 태도, 성공적 노화, 심리사회적 성숙, 지혜, 자아통합감, 초월

정상적 노화(normal aging)와 최적의 노화(optimal aging), 그리고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이르기까지 잘 나이드는 것(well-aging)에 대한 주제는 Cicero(BC44)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의 노년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다. Cicero는 좋게 나이 드는 것의 본질은

---

1) 교신저자 :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식품섭취를 적절히 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건강과 일상생활의 조절 그리고 인지적 유능성과 관계에서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대의 성공적 노화 담론의 핵심요소들과 거의 일치하여 잘 나이들기와 성공적 노화간의 유사성을 입증한다.

국내의 잘 나이듦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들과 중복되어 왔다. 기존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Rowe와 Kahn(1998)이 제안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모델과 Baltes와 Baltes(1990)가 제시한 노년기 상실의 최소화를 위한 SOC(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들 모델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서구 노인들의 잘 나이듦에 대한 모델로는 적절하지만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한국 노인들의 잘 나이듦에 대한 개념과는 구분된다. 특히 한국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2011). 이는 한국 노인들이 생각하는 잘 나이드는 것 또는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이 주로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관계중심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비해(김경연, 정여진, 2006; 김미령, 2008;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김미혜, 신경림, 2005;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김희주, 주경희, 2008; 신학진, 전상남, 2009; 윤현숙, 유희정, 2006; 이수림, 조성호, 2007; 정순둘,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최혜경, 2008; 하정연, 오윤자, 2003), 대부분의 성공적 노화연구들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이나 사회활동 등 개인주의적 가치 중심의 요소들만을 고려하여 핵심개념을 제대로 접근하지 못

했다.

한국 노인들의 잘 나이들기 또는 성공적 노화를 접근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영숙(2011)은 한국 사회에서 잘 나이든다는 것은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넘어서 주변의 가족과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성숙한 노화(psycho-socially matured aging)’라고 제안하였다. 기존의 성공적 노화는 개인의 행복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주변인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과업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개개인이 행복하면 사회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 행복의 전제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어느 한 편의 행복이 상대방의 행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남편의 성공적 노화나 부모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자녀의 행복이란 이미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불완전한 성공이고 행복이다. 따라서 정영숙(2011)은 한국 사회에서의 잘 나이들기란 타인과의 공존이 가능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성숙한 노화라고 강조하였다.

잘 나이들기 또는 성공적으로 나이들기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주로 연구자들이 규정한 개념중심의 접근이었다면, 성숙한 노화태도는 노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긍정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다(정영숙, 2011). 다시 말하면 잘 나이들기의 핵심은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잘 나이 드는지에 대한 노인들의 성숙한 태도에 접근하고자, 안정신, 정여진, 정영숙, 서수균, Cooney(2012)는 기존의 성공적 노화 모델의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한국노인들의 잘 나이듦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객관적, 주관

적으로 행복한 노인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잘 나이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성숙한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들을 선정하였는데, 이 중 ‘성숙한 노화태도’는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등으로 잘 늙는 것이 무엇인지, 어른답게 늙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노인들의 응답들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노화태도를 잘 늙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및 태도로 정의하고 기존의 성공적 노화개념과는 구분된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한 노화태도가 기존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성공적 노화는 Rowe와 Kahn(1998)이 주장한 질병과 장애가 없고 인지적 및 신체적 기능을 잘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김경식, 이은주, 2010; 김경호, 김지훈, 2008, 2009; 김미령, 2008; 박종한, 김한곤, 2009; 성혜영, 조희선, 2005; 윤현숙, 유희정, 2006, 2007; 윤현숙 외, 2008; 이수림, 조성호, 2007; 최혜경, 2008), 최근에는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감 등을 더하고 있는 추세여서(강인, 2003;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남기민, 최화강, 2009; 문남숙, 남기민, 2008; 박종한, 김한곤, 2009; 신영희, 이혜정, 2009;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이종영, 2005; 윤현숙, 유희정, 2007; 이수림, 조성호, 2007; 정여진, 안정신, 2010; 홍현방, 최혜경, 2003), 본 연구에서는 질병여부와 일상생활 등에서의 장애여부, 인지기능과 사회활동참여,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등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과 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의 잘 나이들기의 모델로서의 성공적 노화 연구들은 연령이나 성, 수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개인의 안녕과 성공적 노화의 수준을 설명한다는 점을 강조한다(Whitbourne, 2008). 따라서 경제수준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덜 행복하고 덜 성공적으로 노화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강인, 2003; 김경연, 정여진, 2006; 김미혜, 신경립, 강미선, 강인, 2004; 박경란, 이영숙, 2002;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그러나 안녕의 역설(paradox of well-being)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듯이 대다수의 노인들은 건강 상실이나 낮은 수입 등의 객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높은 수준의 안녕과 행복감을 보고한다(Mroczek & Kolarz, 1998). 이러한 역설은 노인들의 행복한 노화 또는 잘 나이들기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상관없는 또는 관련성이 적은 개념일 가능성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성숙한 노화태도 및 유사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잘 나이들기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 즉 성숙한 노화태도와 유사한 개념 중의 하나로 심리사회적 성숙을 들 수 있다. 심리사회적 성숙이란 개인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여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심리사회적 성숙은 동양철학 중 하나인 유교와 서구의 심리학 모두에서 인간발달의 중요 개념으로 접근되어져 왔다. 동양적으로는 유학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나 성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수양과 주변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는 긍정적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사회적 책무와 자임을 성숙한 인간의

특성으로 제시하여, 자신을 넘어 타인과 사회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심리사회적 성숙을 강조한다(조공호, 2006).

서구 심리학에서 심리사회적 성숙은 한 개인이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심리내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성숙하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Erikson(1963)은 인간이 심리사회적으로 평생 동안 발달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발달단계별로 주요 발달과업이 되는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의 투쟁을 통해 합리적 가치가 발달하여 심리사회적 성숙을 이루어 간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수용하며 만족하는 자아통합감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절망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한 노인들은 자아통합과 지혜 등의 덕목을 갖게 된다.

노년기 지혜는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경험을 통해 삶의 재구조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Ardelt, 2005),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지혜는 실용적 지혜, 초월적 지혜, 다차원적 지혜들로 접근되어져 왔고(Baltes & Smith, 1990; Wink & Helson, 1997; Ardelt, 2003), 동양에서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접근하여 인지, 성격 및 정서, 관계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 의미로 연구되어져 왔다(이수림, 조성호, 2012; Takahashi, 2000). 지혜가 인지적, 관계적, 자아통합적 요인들의 종합적 탁월성(이수림, 조성호, 2012)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년기 심리사회적 성숙의 대표적 지표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아통합감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생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Erikson, 1963) 노년기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노년기 심리사회적 성숙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서 성숙한 노화태도를 지니는 것과 연관

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rikson(1963)이 전 생애에 걸친 발달과업을 제시할 때 노인들의 평균연령과 비교하여 현대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Joan Erikson(in Erikson, 1998, p.105)은 심리사회적 성숙의 8단계 이후에 80대나 90대에는 9번째 단계의 새로운 과업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Tornstam(1989, 1992, 1996)의 노년-초월성(gero-transcendence)이론에 근거한 개념을 소개하였다. 초월이란 물질적 가치관이나 이성적 견해를 넘어서는 보다 더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다차원적 시각(meta-perspective)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Joan Erikson(1998)은 개인이 80대나 90대가 되면 일상에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초월을 향해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rikson(1963)이 심리사회적 성숙의 8단계를 제시하던 때와 달리, 인간의 노년기가 길어진 한국사회에서 60대 이후의 젊은 노인들과 80대 이후의 노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나 다르다. 특히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노년기 후기에는 물리적 능력이나 에너지보다는 심리정서적 성숙의 깊이를 더하는 초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Joan Erikson이 제안한 9단계의 초월 역시 심리사회적 성숙의 지표 중 하나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동서양 모두에서 인간발달의 중요개념으로 주목하는 심리사회적 성숙은 여러 가지 차원들로 접근되어져 왔고 또한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 내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성숙의 개념이 노년기에만 성취 가능한 변인인 지혜나 자아통합, 초월 등과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이 심리사회적 성숙을 청소년의 발달과 연관시켜왔고 노년기 성숙한 발달과 관련지어 연구된 바가 매우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화와 심리사회적 성숙

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잘 나이드는 데 대한 성숙한 노화태도개념이 지혜, 자아통합감, 초월 등의 심리사회적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성숙한 노화개념의 유용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성숙한 노화태도와 성공적 노화, 그리고 심리사회적 성숙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숙한 노화태도 개념의 유용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노인들과 낮은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지혜, 자아통합감, 초월 등의 노년기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심리사회적 성숙 요소들은 성숙한 노화태도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연구 1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표집하였다. 설문지 800부 중 769부가 수거되었으며, 분석에 필요한 문항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50부를 제외한 71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추출은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의 노인복지관 6개소의 이용자 및 주위 지인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문자해독이나 시력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전 면접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남자노인 303명(42.1%) 그리고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303(42.1)
	여	416(57.9)
나이	60~69세	246(34.2)
	70~79세	367(51.1)
	80세 이상	106(14.7)
결혼상태	배우자와 동거	429(59.7)
	배우자와 별거	8(1.1)
	배우자와 이혼	16(2.2)
	배우자와 사별	257(35.7)
	미혼	9(1.3)
학력	무학	55(7.6)
	초졸	209(29.1)
	중졸	159(22.1)
	고졸	202(28.1)
	대졸	89(12.4)
	대학원졸 이상	5(0.7)
주관적 경제상태	아주 안좋다	51(7.1)
	조금 안좋다	161(22.4)
	비슷하다	328(45.6)
	조금 더 좋다	142(19.7)
	아주 좋다	32(4.5)

여자노인 416명(57.9%)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72.7세이고 70~79세 사이의 노인이 51.1%, 60~69세 노인이 34.2%였다. 결혼상태는 59.7%의 노인들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이 29.1%, 고졸이 28.1%, 중졸이 22.1%를 나타내었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이고 동년배와 비교하여 조금 안 좋다가 22.4%, 조금 더 좋다가 19.7%였다.

#### 측정도구

**성숙한 노화태도** 안정신, 정여진, 정영숙, 서수균, Cooney(2012)가 개발한 성숙한 노화척도 예비

문항 들 중 성숙한 노화태도를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성숙한 노화태도 문항은 ‘잘 늙는다는 것은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 늙는다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잘 늙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어른답게 늙는다는 것은 모범과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잘 늙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잘 늙는다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다’, ‘잘 늙으려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한다’, ‘어른답게 늙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다’, ‘어른답게 늙는다는 것은 고집부리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어른답게 늙는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 ‘늙을수록 바르게 살아야한다’ 등의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숙한 노화태도의 긍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87$ 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K-ADL)** 원장원 외(2002)가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 식사하기,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자립을 ‘1’, 부분의존을 ‘2’, 완전의존을 ‘3’으로 계산하여 7개 항목의 총점을 구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활동에 의존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K-IADL)** 원장원 외(2002)가 개발한 한국형 일상생활 활동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사

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자립을 ‘1’, 부분도움을 ‘2’, 완전도움을 ‘3’, 수행안함을 ‘0’으로 계산하여 10개 항목의 총점을 구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환 수** 윤현숙, 유희정(2006)의 논문을 참고로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등 총 19개 질환에 대해서 해당되는 질환의 수를 합산하였다.

**인지기능(MMSE-K)** 박종한, 권용철(1989)가 Folstein, Folstein과 McHugh(1975)의 MMSE를 수정·번안해 개발한 MMSE-K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지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은 지남력 3문항, 기억등록 1문항, 기억회상 1문항, 주의집중 및 계산 1문항, 언어기능 4문항, 이해 및 판단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부과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활동** 윤현숙·유희정(2006)의 논문을 참고로 종교모임, 동창회, 자원봉사/시민단체, 노인정, 이익옹호단체, 여가/문화/스포츠단체 등 7가지 사회활동에 대해 전혀안함(1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5점)의 Likert 척도로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감(PGCMS)**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Lawton (1975)이 개발한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17문항 중, 안정신 등(2012)이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노인들의 안녕감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표 2. ADL, IADL, 질환 수, 인지기능, 사회활동, PGCMS, 성숙한 노화태도 간의 상관

	ADL	IADL	질환 수	인지 기능	사회 활동	심리적 안녕감	성숙한 노화태도
ADL	1						
IADL	.57***	1					
질환 수	.12**	.08*	1				
인지기능	-.10*	-.06	-.08*	1			
사회활동	-.29***	-.15***	-.07	.10**	1		
심리적 안녕감	-.10**	-.04	-.27***	.19***	.19***	1	
성숙한노화태도	-.12**	-.06	-.09*	.11**	.13**	.09*	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주요변인에 대한 평균 차이(상하위 33%기준)

변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ADL	상집단	183	7.24	.843	-3.11**
	하집단	243	7.68	1.97	
IADL	상집단	185	10.86	2.05	-2.10*
	하집단	240	11.35	2.72	
질환수	상집단	184	2.17	1.56	-2.18*
	하집단	243	2.53	1.92	
인지기능	상집단	183	28.26	2.12	1.59
	하집단	243	27.91	2.43	
사회활동	상집단	177	21.47	5.54	2.73**
	하집단	239	19.96	5.62	
심리적안녕감	상집단	178	30.96	6.47	2.07*
	하집단	238	29.69	5.97	

\* $p < .05$ , \*\* $p < .01$ , \*\*\* $p < .001$ 

선정된 부정적 정서 7문항과 삶의 만족 2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적 정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PASW 18.0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들을 파악하는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관계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 결 과

일상생활동작,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질환 수, 인지기능, 사회활동, 심리적 안녕감, 성숙한 노화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숙한 노화태도와 다른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일상생활동작( $r = -.12$ ,  $p < .01$ ), 질환 수( $r = -.09$ ,  $p < .05$ )는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인지기능( $r = .11$ ,  $p < .01$ ), 사회활동( $r = .13$ ,  $p < .01$ ), 심리적 안녕감( $r = .09$ ,  $p < .05$ )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성숙한 노화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의

존도가 낮고, 질환수가 적으며, 인지기능과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일상생활동작,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질환 수, 인지기능, 사회활동, 심리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숙한 노화태도의 점수를 상위 30% 하위 31%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집단을 상집단, 낮은 집단을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숙한 노화태도의 점수 분포가 44점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여 45점 이상을 상집단으로, 43점 이하를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이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동작( $t=-3.11, p<.01$ ),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t=-2.10, p<.05$ ), 질환 수( $t=-2.18, p<.05$ )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반면에 사회활동( $t=2.73, p<.01$ )과 심리적 안녕감( $t=2.07, p<.01$ )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일상생활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의 자립이 강하고 질환수가 적으며, 사회활동수가 많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연구 2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 노인들로서, 표본추출은 부산·경남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및 종교단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69부가 회수되었으나,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35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183명(52.3%), 여성 167명(47.7%)이고, 평균연령은 72.7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132명(37.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졸이 75명(21.4%), 대졸이 73명(20.9%) 순이었다. 동년배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비슷함'이 182명(52.0%), '조금 안 좋음'이 73명(20.9%), '조금 더 좋음'이 59명(16.9%)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성숙한 노화태도** 연구1에서와 동일하게 안정신, 정여진, 정영숙, 서수균과 Cooney(2012)가 제작한 성숙한 노화태도의 하위차원 중 성숙한 노화태도를 측정하는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숙한 노화태도의 긍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로 나타났다.

**초월** 안정신, 정여진, 정영숙, 서수균과 Cooney(2012)가 제작한 초월을 측정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초월문항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려고 한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 선다', '안 되는 것에 대해 고집부리지 않는다', '남을 이기려고 경쟁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월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83(52.3)
	여	167(47.7)
연령	60-69세	99(28.3)
	70-79세	204(58.3)
	80세 이상	47(13.4)
	평균	72.7
교육수준	무학	10(2.9)
	초졸	51(14.6)
	중졸	75(21.4)
	고졸	132(37.7)
	대졸	73(20.9)
	대졸이상	9(2.6)
주관적 경제상태	아주 안 좋음	23(6.6)
	조금 안 좋음	73(20.9)
	비슷함	182(52.0)
	조금 더 좋음	59(16.9)
	아주 좋음	13(3.7)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4(24.0)
	100만원대	86(24.6)
	200만원대	46(13.3)
	300만원대	24(6.9)
	400만원대	10(2.9)
	500만원 이상	20(5.8)
	결측	80(22.5)
종교	불교	102(29.1)
	기독교	93(26.6)
	천주교	77(22.0)
	무교	74(21.2)
	기타	3(0.9)
	결측	1(0.3)
주관적 건강상태	아주 허약	8(6.6)
	허약	38(10.9)
	보통	174(49.7)
	건강	114(32.6)
	아주 건강	14(4.0)
용돈	기타	2(0.6)
	10만원 미만	24(6.9)
	10만원대	28(8.0)
	20만원대	79(22.6)
	30만원대	91(26.0)
	40만원대	39(11.1)
	50만원 이상	86(24.6)
결측	3(0.9)	

소득원	근로소득	36(10.3)
	퇴직금	29(8.3)
	연금, 보조금	112(32.0)
	자녀지원	90(25.7)
	재산소득	66(18.9)
	기타	15(4.3)
	결측	2(0.6)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 척도는 홍주연(2000)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 3문항과 ‘수용’ 4문항 등 총 7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삶의 만족’은 ‘나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 대해 만족 한다’ 등의 문항으로 신뢰도는  $\alpha=.70$ 로 나타났고, ‘수용’은 ‘나는 내게 닦친 일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alpha=.66$ 로 나타났다.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4$ 로 나타났다.

**지혜** 노인의 지혜를 측정하기 위해 이수립, 조성호(2012)가 개발한 한국판 지혜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자아수용과 타인조망수용’, ‘관심과 포용’, ‘통찰’, ‘정서조절’, ‘경험의 통합’ 등의 5요인, 22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PASW 18.0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들을 파악하는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관계분석, t-test, ANOVA,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자아통합감, 초월, 지혜, 성숙한 노화태도 간의 상관

주요변인	자아통합감	초월	지혜	성숙한 노화태도
자아통합감	1			
초월	.21***	1		
지혜	.28***	.57***	1	
성숙한 노화태도	.27***	.77***	.50***	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6.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주요변인에 대한 평균 차이(상하위 33% 기준)

변인	구분	N	평균	t
자아통합감	상집단	119	44.03	-3.55 ***
	하집단	93	41.68	
초월	상집단	125	31.27	-12.78 ***
	하집단	93	26.57	
지혜	상집단	119	101.71	-6.68 ***
	하집단	92	91.03	

\* $p < .05$ , \*\* $p < .01$ , \*\*\* $p < .001$

###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성숙한 노화태도와 심리사회적 성숙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부록 1),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성숙한 노화태도와 자아통합감, 지혜, 초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은 학력과 건강, 그리고 경제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고 건강이 좋고 경제상태가 비슷하거나 좋다고 평가하는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지혜는 학력에 의해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지혜점수를 보고하였다.

자아통합감, 성숙한 노화태도, 초월, 지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성숙한 노화태도와 다른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아통합감( $r=.27, p<.001$ ), 초월( $r=.77,$

$p<.001$ ), 지혜( $r=.50, p<.0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성숙한 노화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아통합감이 높고, 초월 가치가 높으며, 지혜의 점수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자아통합감, 초월, 지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표 6). 이를 위해 성숙한 노화태도의 점수를 상위 34%, 하위 31%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집단을 상집단, 낮은 집단을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숙한 노화태도의 점수 분포가 44점이 전체의 35.8%를 차지하여 45점 이상을 상집단으로, 43점 이하를 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이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아통합감( $t=-3.55, p<.001$ )과 초월( $t=-12.78, p<.001$ ), 생성감( $t=-4.83, p<.001$ )을 높게 느끼며, 지혜( $t=-6.68, p<.001$ )의 점수도 높은 것으로

표 7. 성숙한 노화태도와 자아통합감, 초월, 지혜와의 관계(N=350)

	성숙한 노화태도	
	$B(\beta)$	$B(\beta)$
연령	.09(.11)*	.01(.01)
교육수준	-.31(-.07)	.06(.01)
주관적인 건강상태	.62(.11)	.18(.03)
주관적인 경제상태	.41(.08)	.16(.03)
자아통합감		.08(.08)*
초월		1.09(.71)***
지혜		.03(.07)
$R^2$	.03	.61
$\Delta R^2$		.58
$F$	2.63*	69.55***

\* $p < .05$ , \*\* $p < .01$ , \*\*\* $p < .001$ 

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차원들도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성숙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노화태도와 자아통합감, 초월, 지혜의 심리사회적 성숙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년기 심리사회적 성숙요인들과 연관이 높은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 및 경제 상태를 통제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성숙한 노화태도를 자아통합감과 초월, 지혜 등의 심리사회적 성숙요인들이 58% 설명하였고, 그 중 초월이 성숙한 노화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beta=.71$   $p < .001$ ), 자아통합감( $\beta=.08$   $p < .05$ ) 역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노인들의 노년기 심리사회적 발달과업 중 자아통합감과 초월이 성숙한 노화태도와 높은 관련이 있고, 그 중 초월의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성숙한 노화태도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와 심리사회적 성숙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심리사회적 성숙과 성숙한 노화태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숙한 노화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성숙한 노화태도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성숙한 노화태도와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성숙한 노화태도와 자아통합감, 초월, 지혜 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1의 결과, 노인의 성숙한 노화태도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더 잘 하고 인지기능도 높고 질환수도 적으며 사회활동도 더 많이 하고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로 나타났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한국 노인들의 잘 나이들기에 대한 접근으로 주로 사용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과 성숙한 노화태도간의 유사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간의 상관계수의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볼 때, 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도와 성공적 노화는 서로 유사하나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노인들의 잘 나이들기 담론에 있어 정영숙(2011)이 제안한 성숙한 노화가 서구적 개념인 성공적 노화의 보완개념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숙한 노화태도의 문항들이 주로 자식에게 누가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한다 등 타인과 관계 중심적이고 이해와 배려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의 안녕을 넘어서 타인들에 대한 배려가 높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성숙으로 한국 노인들의 잘 나이들기에 대한 모델로 적절하다는 것이다.

성숙한 노화태도 점수를 상하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숙한 노화태도 점수가 높은 노인들은 Rowe와 Kahn(1998)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모든 하위영역 중 인지기능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숙한 노화태도 점수가 높은 노인들은 일상생활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문제가 적고 질 환수도 적었으며, 더 많이 사회활동을 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잘 나이드는 것인지, 잘 늙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숙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소들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잘 나이드는 것에 대한 노인들의 성숙한 태도는

노인들을 보다 성공적으로 노화하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선행연구들이 부족하므로 성숙한 노화태도를 지닌 노인들이 더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들이 요구된다.

연구 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성숙한 노화태도와 자아통합감, 초월, 지혜 등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성숙한 노화태도는 성, 연령, 학력, 건강과 경제상태 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노인들의 잘 나이들기의 주요개념인 성공적 노화나 주관적 안녕감 등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에 따라 각각 다른 차이를 보여 집단별 접근이 필요하였으나, 성숙한 노화태도는 연령이나 학력, 주관적 건강과 경제상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아 노년기에 노인들이 보이는 객관적 상실을 넘어서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의 역설(Mroczek & Kolarz, 1998)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성숙한 노화태도와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들의 성숙한 노화태도와 자아통합감, 초월, 그리고 지혜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숙한 노화태도와 심리사회적 성숙간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성숙한 노화태도 점수를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은 노인들이 자아통합감도 높고 초월성도 높으며 지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담 전문가들이 보는 성숙한 사람들은 지혜와 초월, 인간애 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서수균 등(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잘 늙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른답게 늙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높은 노인들은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을 강조하는 성숙한 노화태도를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숙을 도모할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의 공존을 추구할 수 있다고 여겨져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아통합감과 초월이 성숙한 노화태도와 높은 연관이 있는 결과는 노년기의 자아성찰을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과 만족, 그리고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순리에 적응하는 태도들이 잘 늙는다는 것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초월이 성숙한 노화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정영숙 외(2012) 연구에서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성숙한 노화태도가 초월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어, 노년기 신체적 상실이나 사회적 상실의 경험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성숙하게 나이드는 데 대한 노인들의 태도와 높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유지 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년기 후기 신체적 제약을 넘어서는 초월이나 성숙한 노화태도 함양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인들의 잘 나이들기에 대한 접근을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성공적 노화를 넘어서 한국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세대와의 공존을 강조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등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한 성숙한 노화태도 개념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성숙한 노화태도를 가진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고 자아통합감, 지혜 초월 등의 노년기 심리사회적 발달과업들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것 역시 성숙한 노화태도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탐색적 연구의 한계로 성숙한 노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 등의 접근은 미래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들의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성숙과 성숙한 노화태도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년복지연구, 20(2) 95-116.
- 김경식, 이은주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424-432.
- 김경연, 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34, 31-54.
- 김경호, 김지훈 (2008).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유배우자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2), 87-106.
- 김경호,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 김미령 (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5.

- 김현정, 이정은, 한성민 (2010). 세대 간 지원교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7, 265-288.
- 김희주, 주경희 (2008). '한국적 성공적 노화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25-158.
- 남기민, 최화강 (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47-371.
- 문남숙, 남기민 (2008). 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227-1248.
- 박경란, 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종한, 권용철 (1989). 노인용 한국판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의 표준화 연구 : - 제1편 : MMSE-K의 개발 -. 신경정신의학, 28(1), 125-135.
- 박종한, 김한곤 (2009).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학, 12, 95-111.
- 서수균, 정영숙, 안정신, 박민아 (2012). 성숙한 사람의 특징. 대동철학, 59, 267-287.
- 성혜영, 조희선 (2005).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신영희, 이혜정 (2009).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9(4), 1327-1340.
- 신학진, 전상남 (2009).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영향. 노인복지연구, 46, 29-51.
- 안정신, 강인, 김윤정 (2009).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 Cooney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35-54.
-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 Cooney (2012). 성숙한 노화척도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선정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129-149.
- 원장원, 노용균, 선우덕, 이영수 (2002).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대한노인병학회지, 6(4), 98-106.
- 이수립, 조성호 (2007). 나이듦과 지혜: 성공적 노화의 통합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65-87.
- 이수립, 조성호 (2012). 한국판 지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1), 1-26.
- 이종영 (2005).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 심리적 인지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3), 167-183.
- 윤현숙, 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윤현숙, 유희정 (2007). 성공적 노화여부에 따른 중요 생애사건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27(4), 797-827.
-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군석, 유경, 장숙량 (2008). 인생의 보람과 후회: 성공적 노화여부에 따른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13(3), 65-87.
- 정순돌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5.
- 정여진, 안정신 (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 30(2), 535-550.
- 정영숙 (2011). 한국 여성노인의 잘 나이들기: 성숙한 노화의 개념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5-56.
-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9-41.
- 조공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비교. 지식산업사.
- 최혜경 (2008). 한국 노인들의 기대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 개념 형성과 중재방안의 탐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45-168.
- 최혜경, 백지은, 서선영 (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하정연, 오윤자 (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31-144.
- 홍주연 (2000). 성격과 자아통합감이 노인 회상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현방, 최혜경 (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45-154.
- Ardelt, M. (2003). Development and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 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 Ardelt, M. (2005). How wise people cope with crises and obstacles in life. *Revision*, 28(1), 7-19.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Baltes. P. B., & Baltes, M. M.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4.
- Baltes, P. B. & Smith, J. (1990). Towards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87-1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ith new chapters on the ninth stage of development. In Erikson, Erik H.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roczek, D. K., & Kolarz, C. L. (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333-1349.
- Rowe, J. W., & Kahn, R. I.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Takahashi, M. (2000). Toward a culturally inclusive understanding of wisdom: Historical roots in the East and Wes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1(3), 217-230.
- Tornstam, L. (1989). Gero-transcendence: a reformulation of the disengagement theory. *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1), 55 - 63.

- Tornstam, L. (1992). The quo vadis of gerontology; on the gerontological research paradigm. *The Gerontologist, 32*(3), 318 - 326.
- Tornstam, L. (1996). Gerotranscendence; a theory about maturing in old age.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 1*, 37 - 50.
- Whitbourne, S. K. (2008). *Adult Development & Aging*. Wiley.
- Wink, P., & Helson, R. (1997). Practical and transcendent wisdom: Their nature and some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1), 1-15.

---

1차 원고 접수: 2013.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3. 05. 24.  
최종 게재 결정: 2013. 05. 29.

#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tured aging attitude,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maturation: The examination of the matured aging

Jeong-Shin An

Young-Sook Chong Su-Gyun Se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fine the attitude of mature aging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e aging attitude,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maturation. For these purposes, we conducted two different studies with 719 and 350 adults over 60 years of ag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with higher mature aging attitudes reported better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less disease, more social activity, and better psychosocial well-being. Second, there were no age or gender differences shown in mature aging attitudes and psychosocial maturation; however, ego identity differed according to education, health status, and economic status. Furthermore, participants with higher mature-aging attitudes reported higher wisdom, ego integrity, and gero-transcendence than those with lower mature-aging attitude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ature aging concept in the well-aging model for Korean elderly.

*Keywords* : attitudes of the matured aging, successful aging, psycho-social maturation, wisdom, ego-integrity, gero-transcendence

## 부 록

### ▷ 성별

	집단구분	평균(SD)	t값
자아통합감	남(N=181)	42.36(4.34)	-1.23
	여(N=149)	43.00(4.91)	
성숙한 노화 태도	남(N=182)	44.85(4.54)	-1.50
	여(N=164)	45.60(4.67)	
초월	남(N=181)	28.56(3.01)	- .93
	여(N=165)	28.87(3.05)	
지혜	남(N=181)	95.70(11.44)	-1.48
	여(N=153)	97.63(12.12)	

### ▷ 연령

	집단구분	평균(SD)	F값
자아통합감	60대(N= 96)	43.09(4.66)	1.44
	70대(N=191)	42.29(4.70)	
	80대 이상(N=43)	43.28(3.97)	
성숙한 노화 태도	60대(N= 99)	44.83(4.67)	2.15
	70대(N=201)	45.10(4.48)	
	80대 이상(N=46)	46.48(4.91)	
초월	60대(N= 99)	28.35(3.13)	1.28
	70대(N=200)	28.78(2.88)	
	80대 이상(N=47)	29.17(3.41)	
지혜	60대(N= 96)	95.52(12.86)	.98
	70대(N=194)	96.68(10.97)	
	80대 이상(N=44)	98.50(12.75)	

### ▷ 학력

	집단구분	평균(SD)	F값	D
자아통합감	중졸이하(N=126)	42.31(4.27)	4.52*	b
	고졸(N=124)	42.12(4.41)		b
	대졸이상(N=79)	43.97(5.21)		a
성숙한 노화 태도	중졸이하(N=133)	45.32(5.18)	.09	
	고졸(N=130)	45.21(4.33)		
	대졸이상(N=82)	45.04(4.11)		
초월	중졸이하(N=136)	28.97(3.39)	1.24	
	고졸(N=127)	28.70(2.67)		
	대졸이상(N=82)	28.30(2.92)		
지혜	중졸이하(N=124)	98.60(13.35)	3.02*	
	고졸(N=128)	95.27(10.82)		
	대졸이상(N=81)	95.47(10.33)		

▷ 건강상태

	집단구분	평균(SD)	F값	D
자아통합감	허약(N=42)	42.19(5.16)	9.82***	a
	보통(N=163)	41.72(3.99)		a
	건강(N=123)	44.07(4.88)		b
성숙한 노화 태도	허약(N=44)	44.23(6.18)	2.13	
	보통(N=172)	45.04(4.07)		
	건강(N=128)	45.79(4.66)		
초월	허약(N=45)	28.87(3.67)	.83	
	보통(N=172)	28.51(2.76)		
	건강(N=127)	28.94(3.15)		
지혜	허약(N=42)	95.98(13.87)	2.48	
	보통(N=165)	95.36(10.51)		
	건강(N=125)	98.42(12.51)		

▷ 경제상태

	집단구분	평균(SD)	F값	D
자아통합감	안좋다(N=87)	40.66(4.28)	13.33***	a
	비슷(N=174)	43.06(4.12)		b
	좋다(N=69)	44.13(5.37)		b
성숙한 노화 태도	안좋다(N=95)	44.97(4.40)	.51	
	비슷(N=180)	45.14(4.75)		
	좋다(N=71)	45.68(4.54)		
초월	안좋다(N=94)	28.73(2.78)	.05	
	비슷(N=180)	28.73(3.16)		
	좋다(N=72)	28.61(3.04)		
지혜	안좋다(N=91)	94.25(10.02)	2.81	
	비슷(N=174)	97.84(12.84)		
	좋다(N=69)	96.48(10.79)		

